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이현근·구해민 *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탈퇴(Brexit)하면서 자체 행정 입법 추진 및 다양한 규정을 신설. 영국 농식품 관련 규정들의 수시 검토를 통해 영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목표 달성 노력 필요.”

1 서론

- 우리나라와 영국은 한·EU FTA를 통해서 통상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영국이 2021년 1월 1일에 EU에서 완전히 탈퇴(Brexit)하면서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를 위한 영국과 EU 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자 협상을 추진했으며, 2021년 1월에 영국과 양자 FTA를 체결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영국으로부터 2022년 기준으로 평년 대비 46.9% 증가한 3억 9천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양자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25.0% 증가한 추세를 보였음. 반대로, 우리나라가 영국으로 수출하는 농축산물은 7천만 달러(2022년 기준) 수준으로, 평년 대비 18.7%, 전년 대비 3.4% 증가했음(남경수 외, 2023). 우리나라의 농식품 교역액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영국과의 교역량 증가추세에 따라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은 2018년 EU 탈퇴법(The EU Withdrawal Act)을 제정한 이후, 기존 EU 법률을 영국 법률로 전환하면서 약 800건의 행정 입법 제정을 완료하였음. 이 법률들은 ‘유지되는 EU 법률(retained EU law)’로 불리며, 수입식품 및 농산물 분야의 모든 법률을 포함함.
-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업체 및 관련 기관의 대응 방안 마련 차원에서, 새롭게 정비된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 및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hklee@krei.re.kr, hmku@krei.re.kr)

본 고는 2022년 1월에 발간된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의 일부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2 식품법(Food Laws¹⁾)

- 영국은 지난 30년 동안 식품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들(미생물, 알레르기 등)을 겪은 이후 정밀한 조사 과정을 거친 식품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공정하고 일관된 식품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은 유지되는 EU 법률의 ‘일반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농업생명공학과 유기농 기준 등을 포함한 국제 무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동식물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경식품농촌부의 산하기관인 동식물 보건국(the 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이 서비스와 세부 정보를 제공함.
- 식품표준국(Food Standards Agency, FSA)의 경우, 포도주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모든 포장제품 및 날개 판매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및 표준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음. 또한, 식품표준국은 새로운 식품·유전자 변형 정책팀을 통해 식품 및 동물 사료용 농업 생명공학 제품 평가에 대한 정책을 주도함.²⁾
- 영국 행정 시스템은 ‘지방 당국 원칙(Home Authority Principle)’을 기반으로 함. 모든 영국 기업(수입업자 포함)은 소비자 보호, 거래 표준, 식품 안전, 라벨링 및 구성 규칙, 규제 모범 사례에 대한 조언, 지침 및 정보 등을 현지 무역 표준 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음.
 - 지방 당국 원칙은 영국기업이 처음부터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지 정부 규정은 외국 식품의 구성 및 라벨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함.
- 2014년에 제정된 식품 정보 규정(Food Information Regulation)³⁾에 따르면, 영국 현지 당국과 항만 보건 당국은 식품 사업자(수입업체, 소매업체, 식품 서비스 업체 등)가 라벨링 및 정보 제공 법률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권한이 있음.
 - 법률 위반에 관한 집행은 규정 위반의 성격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서면 경고와 개선 통지 또는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1)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지만,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남아 EU의 식품법을 준수함.

2) 식품표준국(FSA)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사료 및 식품 관련 법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며, 잉글랜드의 경우 라벨링에 관한 법은 환경식품농촌부 소관 업무임. 스코틀랜드의 경우 2015년 4월에 설립한 스코틀랜드 식품표준국(Food Standards Scotland, FSS)을 통해 전반적인 식품 안전을 담당함.

3) 식품 정보 규정은 EU의 식품 정보 규정(1169/2011)에 근거하여 2014년 7월 15일에 발효됨.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1990년 영국의 식품 안전법과 2013년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정에 따라 외국 제품이 요구사항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국 수입업체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모든 합리적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했음을 보여주어야 함.
- 결과적으로 영국 구매자는 외국 공급업체에 해당 업체가 만든 식품의 개별 성분 출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제품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영국과 EU에서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일 수 있는 성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됨.

3 식품 표시(Labeling)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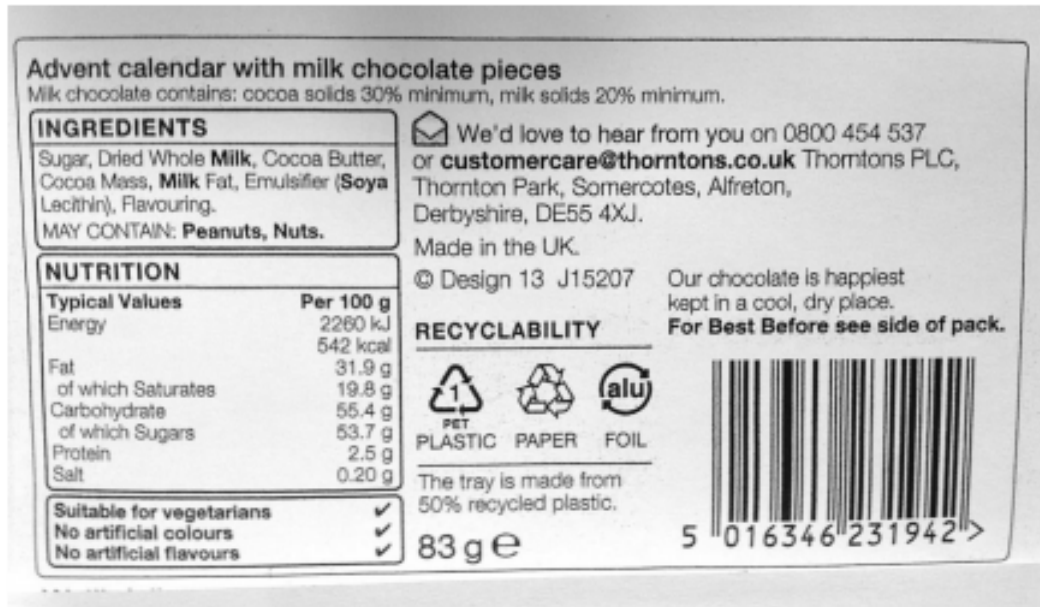
3.1. 일반 요건

- 영국에서는 식품 라벨링 정책에 대한 책임이 환경식품농촌부와 식품표준국 및 보건부에 분할되어 있음.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모두 같은 라벨링 요건을 따르지만, 각각 감독하는 지역 기관이 따로 있음.
- 영국의 식품 라벨은 눈에 띄는 곳에 영구적으로 위치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없어야 함. 영국의 식품표시 요건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명칭
 - 유통기한(사용기한)
 - 경고(식품에 특정 성분이 포함된 경우)
 - 순 함량 정보
 - 성분 목록(2가지 이상 성분이 포함된 경우)
 - 국가 또는 원산지(필요한 경우)
 - 제품 번호 또는 소비기한
 - 보관조건
 - 사용법 또는 조리지침
 - 제조·판매·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 표기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그림 1. 영국의 식품(어드벤트 캘린더 초콜릿) 라벨 예시



자료: USDA(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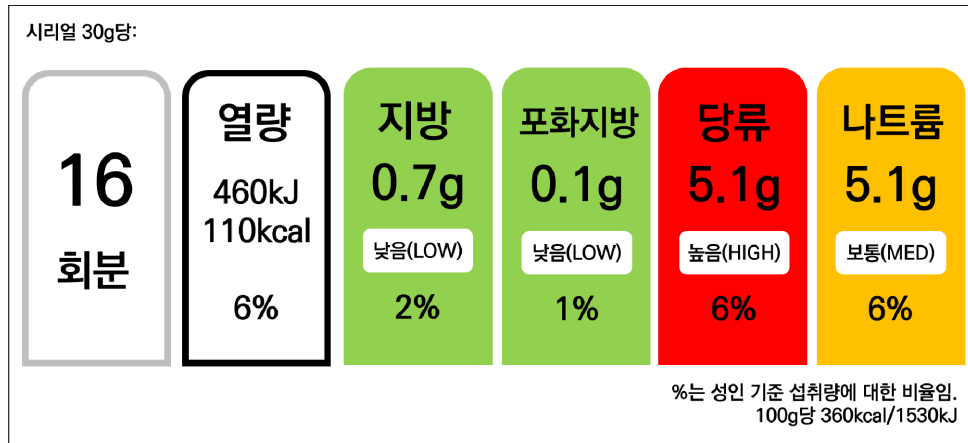
- 라벨을 표시할 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은 성분(Ingredients) 목록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하며, 라벨링 요건 준수를 위해 기본 영양 정보가 'Nutrition'에 표기되어야 함. 또한, 2022년 10월 1일부터 영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라벨에 영국 내 식품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함.⁴⁾
 - 라벨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영국 수입업자가 부착해야 하며, 영양 강조 표시(Nutrition claim) 및 건강기능강조 표시(Health claims) 정책은 EU에서 지속해온 정책을 따름. 제품에 따라 라벨 변환이 복잡할 수 있기에 수입업자는 식품법 및 라벨링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좋음.
- 또한,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영국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은 제품에 자발적으로 신호등 표시(traffic light labeling) 시스템을 사용하여 포장 전면에서 색으로 구분된 영양 정보를 표시하고 있음.
 - 신호등 표시 시스템은 식품의 지방, 포화지방, 소금, 당류 및 나트륨 함량 수준을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시스템임. 단, 열량에는 색을 표시하지 않음.

4)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또는 EU 식품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함.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그림 2. 시리얼 포장 전면의 신호등 표시 예시



자료: USDA 자료 재가공.

- 영국의 신호등 시스템의 기준값은 EU의 영양·건강 규정(EC 1924/2006)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식품과 음료별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식품의 경우, 지방은 식품 100g당 3.0g, 포화지방은 1.5g, 당류는 5.0g, 나트륨은 0.3g이 최저 기준임<표 1 참고>. 음료의 경우에는 식품 기준보다 조금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표 2 참고>.

표 1. 영국 식품류 기준 신호등 시스템 기준

구 분	낮음(LOW)	보통(MEDIUM)	높음(HIGH)	
			25% 이상	30% 이상
색 표시	녹색	황색	적색	
지방	$\leq 3.0\text{g}/100\text{g}$	$3.0\text{g} < X \leq 17.5\text{g}/100\text{g}$	$> 17.5\text{g}/100\text{g}$	$> 21\text{g}/100\text{g}$
포화지방	$\leq 1.5\text{g}/100\text{g}$	$1.5\text{g} < X \leq 5.0\text{g}/100\text{g}$	$> 5.0\text{g}/100\text{g}$	$> 6.0\text{g}/100\text{g}$
당류(총량)	$\leq 5.0\text{g}/100\text{g}$	$5.0\text{g} < X \leq 22.5\text{g}/100\text{g}$	$> 22.5\text{g}/100\text{g}$	$> 27\text{g}/100\text{g}$
나트륨	$\leq 0.3\text{g}/100\text{g}$	$0.3\text{g} < X \leq 1.5\text{g}/100\text{g}$	$> 1.5\text{g}/100\text{g}$	$> 1.8\text{g}/100\text{g}$

자료: 영국 정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ront-of-pack-nutrition-labelling-guidance>). 검색일: 2023. 3. 27.

- 설탕의 경우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설탕 무첨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식품에 설탕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식품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당분 포함’이라는 별도의 표시를 추가해야 함.
- 예를 들면, ‘이 제품에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지만 자연 발생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색상 코드는 이 제품의 당분 총량을 반영합니다. 이 제품에는 당분이 첨가되지 않았지만, 우유, 건포도 등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함.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영양소 성분은 반드시 열량, 지방, 포화지방, 당류와 나트륨 순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름모꼴을 유지해야 함. 또한, 대부분 제품에서 가로 형태로 신호등 시스템을 적용하지만, 일부 세로형 제품에서는 세로로 제시할 수도 있음. 영양소 색은 글씨나 테두리가 아닌 음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Pantone 또는 CMYK 기준으로 정해진 색을 사용해야 함.⁵⁾

표 2. 영국 음료 기준 신호등 시스템 기준

구 분	낮음(LOW)	보통(MEDIUM)	높음(HIGH)	
			25% 이상	30% 이상
색 표시	녹색	황색	적색	
지방	$\leq 1.5\text{g}/100\text{mL}$	$1.5\text{g} < X \leq 8.75\text{g}/100\text{mL}$	$> 8.75\text{g}/100\text{mL}$	$> 10.5\text{g}/100\text{mL}$
포화지방	$\leq 0.75\text{g}/100\text{mL}$	$0.75\text{g} < X \leq 2.5\text{g}/100\text{mL}$	$> 2.5\text{g}/100\text{mL}$	$> 3\text{g}/100\text{mL}$
당류(총량)	$\leq 2.5\text{g}/100\text{mL}$	$2.5\text{g} < X \leq 11.25\text{g}/100\text{mL}$	$> 11.25\text{g}/100\text{mL}$	$> 13.5\text{g}/100\text{mL}$
나트륨	$\leq 0.3\text{g}/100\text{mL}$	$0.3\text{g} < X \leq 0.75\text{g}/100\text{mL}$	$> 0.75\text{g}/100\text{mL}$	$> 0.9\text{g}/100\text{mL}$

자료: 영국 정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ront-of-pack-nutrition-labelling-guidance>). 검색일: 2023. 3. 27.

3.2. 환경 메시지

- 영국 정부와 공급망은 식품 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임. 위 <그림 1>에서 초콜릿 어드벤처 캘린더의 라벨과 같이 포장재의 원료 자체가 재활용 플라스틱인 점과 플라스틱, 종이와 호일의 재활용 표시를 유의해야 함.

3.3. 기타 특정 식품표시 요건

- 영양소와 건강에 대한 강조 표시와 글루텐 프리(gluten free)와 같은 특수 목적 식품 강조 표시에 대한 제한 외에도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식품, 알코올음료, 육류 및 냉동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라벨링 요건이 있음.
- 유전자 변형 식품과 포도주, 맥주 등의 알코올음료는 식품표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증류주의 경우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맥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모든 알코올음료는 알코올 함량이 1.2% 이상이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5) Pantone 기준으로 녹색은 PMS 375, 황색은 PMS 143, 적색은 PMS 032임. CMYK 기준으로 녹색은 C: 48%-M: 0%-Y: 94%-K:0%, 황색은 C: 0%-M: 36%-Y: 87%-K:0%, 적색은 C: 0%-M: 90%-Y: 86%-K:0%임.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유기농 식품의 경우 2021년 12월 12일까지 EU 유기농 인증이 유효했으나, 이후 기존 EU의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유기농 규정이 마련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15년 2월 1일에 EU와의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organic equivalence arrangement)이 발효되었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⁶⁾
- 영국 정부에 따르면 유럽 내 국가를 제외한 제3국 중에서 영국과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을 맺은 13개 국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음.
-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는 다섯 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공 농식품(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r use as food)만 협정이 적용되고 있음.

표 3. 영국의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국가(제3국)와 품목 범위

국가	품목 범위
• 아르헨티나 • 호주 • 캐나다 • 칠레 • 코스타리카 • 인도 • 이스라엘	• 일본 • 스위스 • 튀니지 • 미국 • 뉴질랜드 • 한국
	• A 가공하지 않은 식물 • B 산 동물, 가공하지 않은 동물성 상품(꿀, 밀랍 포함) • C 수산물, 해초 • D 식용 가공 농식품 • E 사료용 가공 농식품 • F 종자 등

자료: 영국 정부(<https://www.gov.uk/guidance/importing-and-exporting-organic-food#importing-organic-food-from-non-eu-countries-to-great-britain>). 검색일: 2023. 3. 27.

- 환경식품농촌부에 따르면, 제품의 유기농 성분이 최소 95% 포함되어야만 유기농 라벨을 붙일 수 있음. 또한, 유기농 라벨에는 영국의 유기농 관리 기관에 등록되어 인증을 받은 관리 기관의 코드 번호와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해야 함.
- 한국을 포함하여 비(非)EU 국가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영국 유기농 수입 시스템을 통해 검사 인증서(Great Britain Certificate of inspection, GB COI)를 받아야 함.⁷⁾
- 영국은 채식주의자와 비건, 식물성 육류 및 유제품 대체재 라벨링에 대한 특정 식품표시 요건은 없으나, 식물성 제품에 치즈와 버터, 우유와 같은 유제품 이름의 라벨을 붙일 수 없다는 EU의 규정을 따름.

6) 영국이 2021년 1월 1일에 EU에서 완전히 탈퇴하면서 우리나라는 영국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별도의 협정을 맺음. 한편, 우리나라와 EU 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7) Kati의 '유기농 식품의 수출입 지침 업데이트(<https://www.kati.net/>)' 내용을 참고함(검색일: 2022. 11. 28.).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4 포장 규정

- 포장 관련 규정(SI 2006/659)은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의 담당 하에 국립측정사무소(National Measurement Office, NMO)에서 관리하고 있음.
 - 포장 폐기물의 경우 환경식품농촌부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가 담당하고 있음.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포장 폐기물 규정의 이행과 2003년 개정된 영국의 국내 포장 규정을 관리함.
 - 환경식품농촌부는 2005년 생산자 책임 의무 규정을 통해 영국 폐기물 정책 및 재활용 관련 국내 규정 시행의 모든 측면을 담당함.
- 영국은 식품과 접촉되어 오염될 수 있는 잉크 및 접착 라벨 등과 같은 포장 성분을 2012년 식품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소시지 껍질처럼 식품 일부이며, 식용으로 사용되는 코팅 물질은 포함하지 않음.

5 식품 첨가물 규정

- 영국은 색소, 방부제, 향산화제, 감미료,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등과 같이 허가된 식품 첨가물에 대해 최대 허용치를 책정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운영함.
 - 영국의 식품 첨가물 규정은 식품표준국에서 관리하는데, 가장 최근인 2022년 2월 7일부터 EU와 북아일랜드에서 이산화티타늄(TiO_2)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음.
 -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이 6개월 주어졌으며, 이 기간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2022년 8월 7일부터는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었음. 자세한 식품 첨가물 허용 목록은 영국 식품표준국에서 알아볼 수 있음.⁸⁾
- 영국은 독성 위원회(Committee on Toxicity, COT)로 알려진 전문가 패널을 통해 새로운 식품 첨가물을 평가하고 승인함.

8) 영국 정부.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approved-additives-and-e-numbers>). 검색일: 2023. 3. 27.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영국에 판매할 목적의 상품에서 <표 4>와 같이 6가지 식용색소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식품은 ‘아동의 활동 및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함.
- 이를 위해 제조업체들은 해당 식용색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제품을 새로 만들거나, 비트 뿌리를 사용하는 등 더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하고 있음.

표 4.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색소

구 분	기타 명칭
Quinoline Yellow	Food Yellow 13, FD&C Yellow No.10, Acid Yellow 3
Sunset Yellow	Orange Yellow S, FD&C Yellow 6
Ponceau 4R	Cochineal Red A, C.I. Acid Red 18, Brilliant Scarlet 3R, Brilliant Scarlet 4R
Tartrazine	FD&C Yellow 5, Acid Yellow 23, Food Yellow 4
Azorubine/Carmoisine	Food Red 3, Azorubin S, Brilliant Carmoisin O, Acid Red 14
Allura Red AC	Food Red 17, FD&C Red 40

자료: USDA(2022).

6 농약 및 기타 오염 물질

- 영국에서는 화학물질규제부(Chemical Regulation Directorate, CRD)와 환경식품농촌부 잔류농약 전문가 위원회가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농약을 관찰함.
 - 그 결과는 매년 게시되며,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살충제 섭취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 CRD 전문가의 평가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짐.
- 2013년 식품 오염 물질 규정에서는 2010년 식품 오염 물질 규정을 폐지하고 EU 집행위원회 규정(650/2012, 1258/2011, 1881/2006)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개정되었음. 본 규정에는 질산염, 곰팡이, 다이옥신, 중금속 및 주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음.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7 기타 규정

7.1. 증명서

- 검역증명서는 영국에 수입되는 동물성 제품에 필수 요건이며, 식물 검역증명서는 영국에 해충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식물 제품에 요구되는 요건임. 동물성 제품은 환경식품농촌부의 담당하에 있으며, 자세한 요건은 동식물보건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7.2. 검역

- 일부 제품의 경우 특정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육류와 유제품 및 생선과 같은 동물성 제품은 항구나 공항과 같은 국경 통제소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으며, 일부 식물 재료나 동물 원료가 아닌 기타 식품에도 유사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
- 영국은 서류 심사에서 검역증명서 및 실험 테스트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고 위탁판매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역 서류의 세부 사항과 교차적합 검사를 시행함. 또한, 상품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벨링 및 건강 성분 표시도 확인하며, 포장을 개봉하고 제품 검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와 인증받은 제품과 같은지에 대해 확인함.
 - 검사관은 해당 제품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를 위해 표본을 채취할 수도 있음. 영국은 특정 동물성 제품에 대한 식물 검사 기준을 규정하는 Commission Decision(94/360/EC)과 EU 규정(2019/2007)을 따름.
 - 일반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최소 화물 수는 포유 육류 및 육가공품의 경우 20%, 가금육/꿀/유제품 등은 50%, 비식용 기타 동물성 제품은 1~10% 수준임.
- 영국이 채택한 EU 규정(EC 669/2009)에 따른 특정 기타 고위험 사료 및 비동물성 식품에 대한 동일성 및 물리적 검사 빈도는 같은 규정(EC 669/2009)의 부록 I에서 찾을 수 있음.⁹⁾ 또한, 식품 안정상의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 조건이 요구되기도 함. 이는 항만 보건 공무원이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음.

9) EU 규정 669/2009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통합한 2019/1703(Document 32019 R1793, 2019년 10월 29일 시행)이 새로 마련됨(<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R1793>, 검색일: 2023. 5. 8.).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7.3. 시설 등록

- 영국은 EU의 승인 시설을 준수했으나 브렉시트 이후(2021. 1. 1.) 영국에서 승인된 시설에서 처리된 제품만이 영국으로 수입될 수 있음.

7.4. 제품 등록

- 영국에서 특정 규제 식품 및 사료 제품(사료 첨가제, 특정 영양용 사료, 향료, 식품 첨가물, 식품 접촉물질(플라스틱), 식품 효소, 훈제 향료, 노블푸드 등) 판매 시 사전에 승인이 필요함. 노블푸드는 유럽 내 소비되지 않았던 식품의 시판 전 안정성 평가를 위해 1997년 5월 도입되었음. 노블푸드 규정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에 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표준국 홈페이지¹⁰⁾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8. 시사점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한·영 교역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었고,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1일 한·영 FTA가 발효되었음.¹¹⁾ 우리나라의 對영국 농식품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양자 간 FTA 발효 이후에도 증가추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면서 자체 행정 입법을 추진하고, 다양한 규정들을 신설하였음. 따라서, 영국으로의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증가와 영국의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는 EU에서 탈퇴한 후 EU 식품법을 바탕으로 한 영국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EU 식품법이 적용되었음.
 - 영국은 4개 지역별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어 공통된 식품표시 요건뿐만 아니라 파생된 지역별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국의 일반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이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영국에서는 수출국들이 영국의 수입업체 또는 관세 업체와 협력하여 영국 농식품 수입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규정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¹²⁾

10) 영국 정부.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regulated-products/novel-foods-guidance>). 검색일: 2023. 3. 27.

11) 이현근 외(2019)의 「한·EU FTA 이행 8년, 농식품 교역과 한·영 FTA 추진」을 참고함.

12) 해양수산개발원(2021)의 「2021 영국 라벨링 제도」를 참고함.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또한, 영국 수출 시 원산지나 주소 표시 규정 등과 같은 변경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둘째, 영국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라벨에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신호등 표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신호등 표시 시스템은 식품과 음료 제품에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열량, 지방, 포화지방, 당류와 나트륨 함량과 평균 성인 일일 섭취량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세 가지 색을 적용해 소비자가 상품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 농식품도 영국으로 수출할 때는 영국 내 판매 제품과 경쟁을 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신호등 표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기준에 맞는 추가적인 성분분석, 디자인 및 제품 개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영국과의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의 범위가 현재 식용 가공 농식품으로 한정되어 있음. 다른 나라와 같이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넷째,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어온 기후변화와 최근 추진되는 IPEF 등의 흐름을 볼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통상 부문에서도 국가별 규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임.
 - 영국에서도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그 자체의 생산방식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이제는 국내 판매 제품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제품의 포장재도 재활용 가능성, 친환경성, 에너지 절감 정도가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명확해 보임.
 - 따라서, 포장재로 인해 수입 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지금까지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영국의 규정은 '유지되는 EU 법률'로 불리는 만큼 기존 EU의 규정과 비슷한 면이 많음. 다만, 영국은 지방 행정 시스템에 따라 지역별 규정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영국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다소 있어서 관련 규정들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영국에서의 수입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임.
- 이러한 노력이 모여진다면, 영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남경수, 채상현, 최미라, 김경호. 2023.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2022년 4분기)』. 제10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한-유럽연합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 이현근, 채상현, 유주영. 2019. 『한-EU FTA 이행 8년, 농식품 교역과 한·영 FTA 추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2021 영국 라벨링 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USDA. 20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USDA.

〈참고사이트〉

-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importing-and-exporting-organic-food#importing-organic-food-from-non-eu-countries-to-great-britain>). 검색일: 2023. 3. 27.
- 영국 정부.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approved-additives-and-e-numbers>). 검색일: 2023. 3. 27.
-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ront-of-pack-nutrition-labelling-guidance>). 검색일: 2023. 3. 27.
- 영국 정부.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regulated-products/novel-foods-guidance>). 검색일: 2023. 3. 27.
- 유럽연합 법령정보,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R1793>), 검색일: 2023. 5. 8.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1. 10.
- KaTi. (<https://www.kati.net/>). 검색일: 2022. 11. 28.